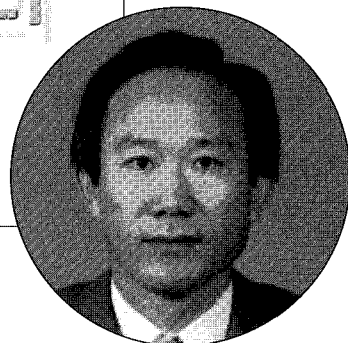




아카시아 이후의 봉군관리



조합장 조 상 균
한국양봉축산업협동조합

1. 여름철의 봉군관리

아카시아 대부분 지역에서 5월 말이면 끝이 나고 일부 늦은 지역에서나 6월 초순까지 가게 되는데 양봉인은 아카시아 꽃이 지기 전에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양봉사업을 할것을 정해야 한다.

딸기밭 화분매개벌이나 종봉판매를 위주로 양봉을 하기위 하는 아카시아 꽃이 지나마자 여왕벌이 출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 만들어야 하겠고 로얄제리를 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화분이 잘 들어오는 지역을 답사하여 생산준비를 하여야 하겠고, 채밀 위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밤꽃이나 대추, 때죽, 가중나무가 많은 지역으로 이동하여야 하겠다. 또한 화분채집을 위하여는 짙레, 개웃나무, 다래가 많은 지역이 많은 화분을 받을수 있다.

여름철에는 무더위가 계속되기 때문에 시원한 그늘 속이 좋으며 산란력 또한 3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그늘 속에서 관리하여야 좋지만 부득이 그렇지 못할 경우 스티로폼을 덮어 주는 것이 차선책이 되겠으며 장마 때도 효과를 보게 된다.

집 근처에 자기 땅이 있을 때는 양봉사를 짓는 것도 여름철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양봉인 스스로 이러한 방향으로 양봉관리 방법을 개선해야 하겠다. 아카시아 꽃이 지고 나면 산란력이 왕성해지게 되는데 이때가 봉충이 제일 적은 시기이다 보니 진드기 약제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으며, 또한 무밀기 이다 보니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은 사양을 시켜서 충분한 식량공급을 해주어야 한다.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사이 매년 장마가 찾아오기 때문에 빗물이 벌통에 스미지 않게 관리하여야 하겠

으며, 하천근처나 산사태가 발생할수 있는 지역, 낙뢰가 예상되는 지역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두꺼비의 피해도 예상되므로 저녁에 한번씩 소문얇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습도가 높아 석고병 발병율도 높으므로 착봉을 좋게 관리하여야 하겠다. 부저병 발생도 잘되므로 급수기에 테라마이신을 해주거나 안전한지역으로 옮겨야 하겠다.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진드기 번식도 왕성해지고 각종 질병이 만연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것이 좋다. 장마철이나 무화기 때는 화분 공급을 해주어 산란이 중지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으며 도봉발생도 주의하여야 한다. 여왕벌은 매년 갱신하는 것이 분봉열도 적고 산란력도 우수하므로 5~6월경에 가급적 같이주는 것이 좋으며 늦어도 8월 중순 안에 끝내야 한다.

가. 종봉 생산관리

종봉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가을까지 최대의 산란과 육아가 이루어지게 하는것이 비결이 되겠다.

여왕벌을 1주일 일찍 만드는 것과 늦게 만드는 것과의 차이는 가을에 가서 1~2매 벌의 군세가 차이가 나게 되므로 아카시아 때는 무왕이 많다보니 여왕벌 생산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유밀될 때 여왕벌 생산을 해야왕대도 좋게 된다. 여왕벌을 최대한 아카시아 이후 빨리 만들어야 하는데 유충이 봉하면 이동시 파괴되므로 3차 아카시아로 이동하기 2일 전부터 이동한 이후 하루라도 빨리 이충을 하는 것이 좋다. 좋은 여왕벌의 새끼를 이충할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 비슷한 크기의 유충을 이충하고 1일 정도밖에 안된 어린 유충을 사용한다. 출방할 때도 하루에 너무 많이 출방하면 벌을 가르는데 어려움이 따르므로 본인의 능력이나 준비과정을 살펴서 매일 2~3틀씩 출방할수 있게끔 하고 실패했을 때를 감

안하여 1주일 단위로 여왕벌이 태어나도록 하면 좋다.

(1) 장소 선택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원한 그늘이 좋다. 작은나무 그늘보다는 큰 나무 그늘이 시원하다. 참깨, 옥수수, 같이 있는 지역이 화분이 좋으며 그밖에 산초, 때죽, 밤, 뽕나무, 옷나무, 다래가 있는 지역이 화분이 좋아 산란이 잘 되므로 종봉 생산에 좋은 장소가 되겠다.

(2) 여왕벌 출방전 관리

미리 소비나 소상을 소독하는데 포르말린 훈증 소독이나 불소독을 하여 4m도 떨어진 봉장에 미리 설치한다.

왕대가 출방하기 2일 전쯤 무왕군을 우선 없애서 1~3매 정도씩 가르고 부족할 때는 원군에서 일부 봉충이 터져 나올것을 벌과 같이 빼내어 식량이 없으면 저녁에 식량을 주고 가르면 되겠다. 왕대는 이충 이후 만 11일이 되면 출방하게 되는데 출방 직전 움직일 쯤 떼어 넣어 주는 것이 좋다.

(3) 식량과 증소

식량을 충분하게 관리하는 것이 산란력을 왕성하게 하므로 항상 밀방은 차있을 정도로 주어야 하겠다. 5~7일에 한번씩 사양을 시키면서 증소는 뒷장벌이 한 장씩 넘어와 산란하기 위하여 뒷장 소비를 청소할때 쯤 해주면 되겠다. 소비가 부족하여 소초를 지을 경우에는 식량을 충분히 주고 사양기 뒤에다 대주었다가 벌이 충분하고 다 지으면 넘겨 증소하는 일을 반복하다가 5매 이상으로 착봉이 좋으면 안에다 조소하면서 증소하면 되겠다.

나. 밤꿀 채밀을 위한 양봉관리

아카시아 이후 때죽, 가중나무가 바로 이어지게 되므로 곧바로 이동을 해야 하며 밤나무나 대추나무는 그다음 밀원이 되겠다. 밤꿀은 쓴맛이 강하다 보니 벌들이 과히 좋아하지 않게 된다. 같은 밀원이 있을 경우 밤꿀 채집을 잘 하지 않으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수집하게 되므로 사양을 시키면 밤꿀 역사를 잘 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가급적 식량을 주지 말고 적게 관리한다면 밤꽃이 만개될 때쯤 채밀을 하여 식량이 절당되도록 하는 것도 밤꿀 채밀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언제든지 신왕이 수밀력이 왕성하지만 특히 밤꿀 만큼은 신왕이 아니면 채밀하기가 어렵게 되던가 양에서 많은 차이가 나게 됨을 볼수있다.

그러므로 아카시아꽃이 진 다음 분봉군을 만들어 신왕을 만드는데 밤꽃 유밀될 시기에 맞추어 신왕이 되는 것이 공방이 많기 때문에 채밀량이 많게 된다.

신왕이라도 군세가 너무 약하면 역봉수가 없어 무의미함으로 원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좋다.

다음호에 계속... 